



남원시, 23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남원시가 23개 읍면동의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각 마을의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3일 금동 14일 노암동을 시작으로 23개 전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단을 모집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마을복지계획단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읍면동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남원시농촌진흥센터 등 중간조직과 협업체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동네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게 된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월 “읍면동 복지가능강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2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을 당초 59명에서 104명으로 크게 늘렸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긴급복지대상자 2,530명, 정선장애인 2,757명, 노인취약가구 7,899명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23,490명이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남원형 커뮤니티 케어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자생력을 촉진, 살기좋은 지역민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청 펜싱부 권영준, 아시아펜싱대회 '우승'

익산시청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가 서울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권영준 선수는 지난 10일부터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서울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에페 대표팀은 82에서 키르기스스탄을 45대37로 격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준결승에서는 중국을 만나 29대 25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라온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만나 38대35로 격침시키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결승전에서 권영준 선수의 활약이 빛났는데, 81우트 23대 27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온 권영준 선수는 알렉산드르프를 상대로 1실점만 허용하고 무려 8득점을 성공해 31대 28, 대역전극을 쓰는 데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익산시 펜싱부가 국제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농업회사 장수 유동사업단, 드림스타트에 온정

농업회사법인 장수군 유동사업단(대표 박미경)은 14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품당 10박스(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농업회사법인 장수군 유동사업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군민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박미경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기부받은 물품을 아동통합사례관리대상 35세대 직접 방편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내 취약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의 보장, 문제의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0세~만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코로나 극복·주민화합 선진지 견학

혁신동, 주민자치위 17명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전주시 혁신동(동장 이성순) 주민센터는 지난 14일 주민자치위원 17명과 함께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회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모색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라남도 여수 일대(이순신 광장 및 해양수산과학관 등)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주민자치사업의 우수사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성곤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혁신동 주민센터는 지역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다양한 정보제공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



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진지 견학에 함께 참여한 이성순 혁신동장은 “이번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향 미래상상 거점도시인 혁신동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심평원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예수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99.7점의 우수한 점수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다지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된 평가로서 예수병원은 1차 평가에 이어 2차까지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마취를 받은 환자에 한해 시행했다. 예수병원은 주요 평가지표 중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99.8%, 회복실에서의 오심·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100%,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98.4% 등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인 87.4점을 크게 상회하는 종합점수 99.7을 획득했다.



특하며 최우수등급으로 마취 전 영역에서 안전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 백운면,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주민 설명회

진안군 백운면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근)는 지난 14일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고 살기 좋은 백운민들기를 위해 면지역 내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운면의 경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4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중 32%가 혼자 살고 있어 통합돌봄을 통한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절실하다. 기초 발제를 맡은 황영모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돌봄생활 지원이 통합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이다”며 “면지역에서 이런 정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남근 위원장은 “백운면의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백운에서 여생을 이룰들과 함께 지내려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통합돌봄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면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군 고수면, 화사한 꽃 식재 불거리 제공

고창군 고수면이 생애한 여름의 싱그러움을 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난 13일 여름을 맞아 화사하고 쾌적한 고수면 만들기 위하여 면사무소 앞에서 소재지 도로변까지 약 1km의 화단에 메리골드 1000여본을 식재한 것이다. 앞서 고수면은 봄의 시작을 일리는 리빙스텐데이지를 1000여본 식재하여 마을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용철 고수면장은 “이번에 식재된 화사한 꽃을 보며 무더위를 이겨내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면에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고수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부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진행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 인훈련원과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개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근로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유형 및 예방수칙, 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등에 관해 교육한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산림사업장 특별점검 및 현장 중심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재해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4회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 성황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와 고창군 관내 지역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제14회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를 15일 고창읍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개최했다.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2008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농촌지역 원로 조합원들의 게이트볼 경기를 통한 건강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군지부와 지역농협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14회 대회를 맞이하고 있다.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날 대회에도 각 읍·면별 대표팀은 15개 팀 1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평소 갖고 있던 실력과 기량을 펼쳤다. /고창=김영식기자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주년 기념식

군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개소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내·외빈들을 초청해서 개최됐으며, 관내 기관 사회 단체장과 관련인사 5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유현희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문다혜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장의 축사, 센터의 10년 동안의 활동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센터에서 개발한 교구·교재 전시도 함께 이루어 졌다. /군산=김관근기자



건협 전북지부·어머니봉사단, 군경묘지 환경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정규일,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5일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전주군경묘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 및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 30여 명이 참석해 증후불발람 참배 후 모비 닭기, 잡초 제거 등 묘역정화 활동을 하며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건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수호하다 전사한 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전주 보훈단체 협의회, 제주에서 워크숍 진행

전주시 보훈단체 협의회(회장 김귀만)은 소속 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 43평화공원 참배와 제주 로베로 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6월 보훈의달을 맞아 협의회가 ‘2022년 안보순례 및 보훈 선진지 방문 참배’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특히 제주도 보훈단체와 43평화공원 관계자들의 안내와 협조 속에 진행되고 의미를 더 했다.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9개 단체 워크숍에서는 올해 완공 예정인 전주 누리보훈공원 전시관 및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김윤상 기자